

# 연내 마지막 '인기 검증' 지방 아파트 수요자 관심집중

**HDC현산 '청주 가경 아이파크 4단지'**  
201가구... 2개 버스터미널 도보권  
**롯데건설 '춘천 롯데캐슬 워너클래스'**  
873세대... 춘천초·중 등 '학세권'



HDC현대산업개발 '청주 가경 아이파크 4단지' 투시도. /리얼투데이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로 지방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인기가 검증된 지역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7월 전남 순천시에서 분양할 '순천 금호어울림 더파크'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7.35대 1, 최고 54.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8월 분양한 '순천 모아엘가 리버파크' 역시 평균 11.14대 1, 최고 13.07대 1을 기록했다. 이 두 단지가 들어서는 순천시 서면 일대는 원도심 개발 및 삼산민간공원화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어 신형 주거타운으로 주목 받고 있는 지역이다.

경북 경산시 중산동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 '경산 힐스테이트 펜타힐즈'가 평균 173.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3월 공급된 '경산 중산 코오롱하늘채 메트로폴리스'도 평균 62.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시장 분위기가 다소 침체돼 있다 보

니, 수요자들이 미래가치가 확실한 곳에만 청약에 나선다"며 "인기 분양 단지의 잔여분에 몰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고 전했다.

2019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검증된 지역에서 공급되는 연내 마지막 분양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달 청주시 흥덕구에서 공급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지웰 푸르지오'가 1순위 청약에서 7.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데 이어 최근 97%의 계약률을 달성하며 높은 인기를 끈 바 있다. 청주시 흥덕구는 SK하이닉스, LG전자 등의 기업이 자리하고 있는데다 정주여건이 우수해 지역 내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다.

이달 청주시 흥덕구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청주 가경 아이파크 4단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가경동 320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27층, 2개동, 전용면적 84㎡ 총 20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청주고속버스터미널과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KTX 오송역 이용도 편리하다.

올해 3개 단지 공급에 8만여개의 청약통장이 몰린 충남 아산시 탕정지구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6일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를 모집한다. 아산 탕정지구 2-A2블록에 조성되며,

전용면적 55~59㎡ 총 1072세대 규모다. 단지가 들어서는 아산 탕정지구는 아산디스플레이시티, 아산테크노밸리 등으로 출퇴근이 용이한데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탕정역의 개통이 예정돼 있어 수혜가 기대된다.

지난해 8월 분양한 춘천 약사지구 내 아파트가 1순위 마감에 성공하면서 수요가 증명된 강원도 춘천시 약사동에서는 롯데건설이 지난달 29일 '춘천 롯데캐슬 워너클래스'의 공급에 나섰다. 약사축전3구역(약사동 156-1번지 일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인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7개 동, 총 873세대 규모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84㎡ 660세대를 일반분양한다. 춘천초와 춘천중이 도보권에 있으며, 지역 명문인 춘천고, 성수고 등 다수의 학교가 가까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4일 1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ooul.co.kr

## 한화건설, 포레나 4개단지 연속 매진 '흥행열풍'

### FORENA

미분양 천안서도 100% 계약 달성  
전주 에코시티 최고경쟁률 309대 1

한화건설이 신규 런칭한 통합 주거 브랜드 '포레나(FORENA)'가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 런칭 이후 신규 분양한 4개 단지가 연속으로 매진, 프리미엄 브랜드 입지를 굳히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신규 분양된 포레나 분양단지들이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각 지역의 최선호 단지,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심지어는 미분양 관리 지역인 천안에서도 100% 계약을 달성했다.

한화건설이 지난 8월 신규 주거 브랜드인 포레나를 선보인 이후 신규 분양한 아파트는 '포레나 천안 두정(9월)',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10월)', '도마e편한세상 포레나(10월)', '포레나 루원 시티(11월)' 4개 단지다.

이 중 포레나 천안 두정을 제외한 모든 단지가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10월 분양한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는 1순위에서 최고 경쟁률

309대 1, 평균 경쟁률 61.64대 1을, 같은 달 대전광역시 도마e편한세상 포레나 역시 최고 263대 1, 평균 78.1대 1을, 이어 11월 분양한 인천광역시 포레나 루원시티도 1순위 청약접수 결과 최고 38.76대 1, 평균 20.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포레나의 인기는 기존 단지에도 나타나고 있다. 한화건설은 지난 달 입주 예정자들의 요청에 의해 총 8개 단지, 5520가구의 주택 브랜드를 이전 브랜드인 '꿈에그린'에서 포레나로 변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포레나 영등포, 포레나 노원, 포레나 광고, 포레나 신진주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내년 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된다. 또한 이미 입주가 완료된 단지들에서도 지속적으로 브랜드 변경에 대한 문의 및 요청이 접수되고 있다. 한화건설은 최근에 입주한 단지들 위주로 포레나 브랜드 사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화건설의 신규 주거 브랜드 포레나는 스웨덴어로 '연결'을 의미하며 '사람과 공간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주거문화를 만들겠다는 한화건설의 의지를 담고 있다. 브랜드 슬로건은 '특별한 일상의 시작'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지난 2일 여의도 KB증권 본사에서 KB증권 박정림 대표이사(오른쪽)와 이스트소프트 정상원 대표이사가 업무 제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증권

### KB증권-이스트소프트 포괄적 업무제휴 협약

KB증권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사에서 이스트소프트와 혁신적테크핀(TechFin·IT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플랫폼 구축 및 인공지능(AI) 기술의 자본시장 적용 등에 대한 포괄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이사, 김우승 줌인터넷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B증권은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국내 대표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이스트소프트와 신기술과 연계한 혁신적 금융 플랫폼 및 서비스를 공동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투자자 정보와 연계한 AI 큐레이션 서비스 도입, AI 기반 언어 분석을 통한 STT(speech to text·음성을 텍스트로 변환) 데이터 활용도 확대, 이미지 인식기술을 활용한 eKYC(Know Your Customer·전자디지털 고객확인) 고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KB증권과 이스트소프트 계열사인 줌인터넷이 공동출자를 통해 JV(Joint Venture)를 설립할 계획이다. 해당 JV는 줌인터넷과 이스트소프트가 보유한 플랫폼 개발 능력과 AI 기술, KB증권의 금융 노하우를 결합한 혁신적인 테크핀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손범지기자 sonumji301@

## "LG전자·소니 등 고객사... 내년 어닝서프라이즈 기대"

### 株라쿨라의 종목

#### 고기능성 점착소재 예선테크

OLED TV 판매량 증가 수혜 진행중  
내년 영업익 131억, 23% 증가 전망

"오버행(잠재적 매출)은 마무리 단계이고, 바겐세일 구간이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환 수석연구원은 3일 "업계 최대의 점유율과 최고의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는 예선테크를 주목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예선테크는 지난 2005년 설립된 고기능성 점착소재 전문 기업이다. 점착소재는 디스플레이, 2차전지, 항공,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주로 TV,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 제품에 탑재돼 액정표시장치(LC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을 고정하거나 충격 흡수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매출비중은 L

CD TV 및 모니터 46%, OLED TV 33%, 자동차 및 2차전지 21%다.

TV 부문에서는 글로벌 OLED TV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예선테크의 수혜가 진행중이다. 최 연구원은 "OLED TV에 적용되는 점착소재는 기존 LCD TV에 적용되던 제품과 달리 패널의 화면 번짐(Burn in) 현상, 발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 기능이 추가되기 때문에 점착소재 가격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예선테크는 글로벌 OLED TV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인 LG전자, SO NY 등의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내년에는 글로벌 선두 업체로 제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최 연구원은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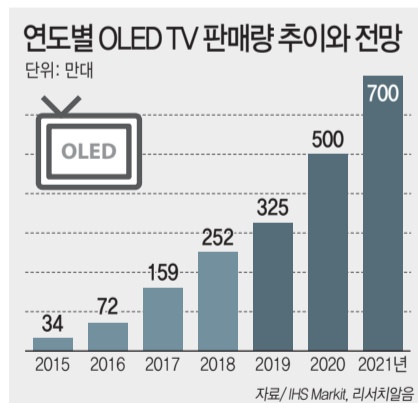
현재 벤츠, BMW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차량용 점착소재 부문도 성장하고 있다. 예선테크의 차량용 점착소재 매출액은 2017년 6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 50억원,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 47억원을 기록했다. TV, 모니터 대비 디스플레이 면적이 적어 볼륨

이 크진 않지만 내구성이 필요한 제품으로 이익률이 높다는 평가다.

최 연구원은 "자동차 전장화 트렌드로 계기판(Cluster), 헤드 업 디스플레이(HUD), 센터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CID),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RSE) 등에 디스플레이가 다양하게 탑재되고 있다"면서 "향후 디스플레이 적용 소재뿐 아니라 내장재 등 인테리어 관련 제품으로 확대가 전망되어 고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예선테크 주가를 억눌렀던 오버행 이슈도 대부분 해결됐다. 올 3분기까지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72억원 반영됐다. RCPS 행사는 3분기까지 모두 완료된 것으로 파악된다.

최 연구원은 "상장 이후 기관투자자의 매도물량은 약 300만주로, RCPS 행사로 전환된 보통주가 약 260만주(전환가격 963원)였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주가수준에서 추가물량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연구원은 예선테크가 내년 '어닝 서프라이즈(깜짝실적)'를 달성할 것으로 봤다. 내년 매출액은 올해보다 17.8% 늘어난 720억원, 영업이익은 22.8% 증가한 131억원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했다.

최 연구원은 "글로벌 OLED TV 판매량은 올해 300만대 수준에서 매년 200만대 이상 확대되어 2023년에는 115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OLED TV, 2차전지 등 수익성 높은 분야의 매출비중이 확대되면서 추정치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손범지 기자 sonumji301@